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월 13일(금)
--(윤력 12월 22일)--
Пятница
13 января 2023г.
№ 1 (1201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월 13일은 러시아에서 출판의 날로 기념한다. 이날을 앞두고 러시아 기자동맹 사할린 지부에서 주내 원로기자, 장기간 언론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우글레고르스크의 나제즈다 스크로보가토바에게 겐나지 레푸호브 축하. (사할린기자동맹 제공)

1월13일은 러시아 출판의 날 존경하는 언론인과 대중 정보매체 종사자 여러분!

러시아의 직업 기념일인 '출판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신문 '웨도모스티'가 발행된 지 3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현재 대중 언론매체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내 및 국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각 언론인들과 그들의 재능과 객관성, 특별히 중요 시하는 것, 애국심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사회 간 대화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스런 문제들을 밝히며, 그것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언론사에는 전통적으로 독자와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높은 책임감을 인식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분과 명예를 위해 일하시는 사할린과 쿠릴의 대중언론매체 종사자들과 원로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취와 독자의 성장과 번영과 강건을 기원합니다!

출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새해 연휴 기간 사할린주에서 비상사태 발생하지 않아

연휴 기간에도 사할린주에 정규 정책이 시행됐다. 긴급호출을 위한 통합번호 112로 11,786회가 접수됐는데 지난해보다는 약20%가 줄었다.

사할린주 안전규정 및 민방위, 비상대책 업무에 따른 관계청의 안내 미해제와 청장의 말에 따르면 112 긴급호출 시스템 작동으로 호출에 대한 대응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 소방서 신고 횟수도 줄어들었고, 연휴 기간에 화재는 23건으로 2022년 유사기간보다 12건이 적었다.

아니와, 퇴몹스코예, 스피르니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전력시설에서 6건의 사고가 기록돼 사고대책반이 정한 일정 시간에 전력을 복구시켰다.

공공주택사업 활동의 위반과 관련된 신고는 3.5배 줄었으며, 난방망에서는 주택과 사회시설이 표준온도보다 낮아짐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세웨로쿠릴스크, 홈스크 지역의 난방망에서 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긴급하게 처리했고, 자원공급 기관의 사고처리반이 난방 공급의 문제 처리와 복구에 따른 신속한 조

치를 취했다."고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이 전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새해 연휴 기간에 각 도시 지구에 책임자들의 당직 일정이 작성되었고, 주택공공사업부의 지역 사고 관제 서비스와 통합 당직 관제 서비스가 24시간 가동됐다. 지방 행정부와는 난방 시기의 진행 상태와 주택가 쓰레기 수거, 고체 공공폐기물 운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매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연휴 기간에 주택공공사업부의 긴급 신고망으로 173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105건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걸려왔다. 주요 요망 사항은 주택가와 인도, 주택가 간 진입로의 제설과 결빙 처리 문제였다. 주민들이 주택공공사업부 관리부에 불만을 표해 모든 요청들이 즉시 처리됐다. 또한 지역 관리센터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로부터 30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그중 절반이 이미 해결됐다.

연휴 기간에 주민들이 불만을 표한 주요 분야는 도로 정비와 쓰레기 수거, 대중교통, 주택공공서비스이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에 150대의 안면 인식 카메라 설치

올해 '안전한 도시' 단지의 일부로서 수십 대의 신형 감시카메라를 사할린에 설치한다. 이 장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가장 붐비는 도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도로 구간, 대중교통 이용 구역, 홈스크 거리에 설치돼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된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 청사에는 안면 인식 카메라 150대가 설치되며, 사할린 전역에 현재 '안전한 도시'단지를 위한 5천대의 카메라를 연결한다.

'안전한 도시' 종합 컴퓨터 프로그램은 2015년에 사할린 지역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시스템은 최신 플랫폼으로 전환됐다. 이제 24시간 카메라 작동 시스템으로 수천 개 주택가의 사고 요인을 예방하고, 추적하도록 돕는다.

사할린 주민, 돈바스의 샤흐초르스크에 원조 물품 전달

지난 10일(화) 돈바스의 샤흐초르스크 시로부터 사할린에서 보내온 생필품을 비롯한 의약품과 전문의료기기 등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특수작전 전투지에 나가 있는 군의관들은 사할린 주민들에게 자신의 손길에 고마움을 표했다.

특수작전에 동원된 사할린 출신의 장병들에게 사할린의 여러 기관과 기업체, 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일반인들까지 돕고 있다.

홈스크 지역의 공지에 다기능공원 조성

홈스크 지역 해변가 부근에 현대적 공공구역이 생겼다. 여기에 주차시설과 무대, 다양한 스포츠 경기장, 스케이트 공원이 건설됐고, 장식물도 설치됐다. 새로운 도시시설 조성은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연방 계획의 일환으로 높아진 예산에서 추가 재정을 받은 덕분에 가능했다.

2021년에 이 공원 기획을 위해 이 지역 4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투표로 가결한 가운데 지난해 봄에 시행에 착수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주 예산에서 3천만 루블리가 배정됐는데 이 중 7백만 루블리는 연방 예산이다. 이로써 전 연령의 주민들을 위한 현대적 다기능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2023년 첫 '나와가' 생선, 시장에서 판매

사할린의 생선 판매점에 싱싱한 '나와가' 생선이 등장했다. 2023년 사할린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이 생선은 주요 조업이 이뤄지는 사할린 섬의 북서쪽에서 첫 어획을 하게 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싱싱한 나와가 생선이 1kg당 90-100루블리에 판매되고 있다. 사할린의 어민들은 겨울 조업 기간 타타르해역에서 나와가 1200톤 정도를 어획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2022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 · 행사 · 사건

2022년에도 계속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이 생겨 확산됐지만 대다수 나라들이 제한적으로 국경을 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을 시작했고, 세계 정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 힘든 것 중 하나는 러시아와 한국과의 항공편 직항이 없어진 것이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어르신들이 사할린으로 방문을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뵙는 길이 멀고도 험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도 어려워졌다. 2022년에 영주귀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할린동포들은 아직 한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사 편집부)

1월 9일 -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중 미즈호 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이 열림. KIN(지구총동포연대)과 사할린 향토박물관 진 율리아 박사가 함께 주최. (본지 1월 14일호)

1월 1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주최, 사할린주 체스연맹회 협력으로 연례 한인디아스포라 체스 경기 진행. (본지 1월 21일호)

1월 22일 - 음력설 전에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지방 어르신들에게 KIN이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2'와 함께 선물을 전달. (본지 1월 28일호)

1월 22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결산 콘퍼런스 소집. 회의에서 2021년 사업 보고 문제를 심의하고,

다수가결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를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원에서 퇴출함. (본지 1월 28일호)

1월 2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150여 명이 모인 음력 설맞이 행사 진행. 주최: 새로 창립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단체 (본지 2월 4일 호)

1월 28일-31일 - 사할린 출신의 태권도 선수 김 이고리가 러시아 청각장애인 체육대회(모스크바)에서 1위를 차지해 우승으로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24회 하계 데플림픽(청각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 출전권을 얻음. (본지 2월 4일)

2월 4일 - 음력설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주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의 지원으로 제6회 동양 언어 자치 축제가 원격으로 진행. 140여 명 참가. (본지 2월 11일호)

2월 16일 - 한국 내 시민단체 및 동포단체와 해외동포, 언론단체 등 총 90개 단체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100만인이 서명한 동포시민연대 발대식을 가짐. (본지 2월 18일호)

2월 20일 -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의 임기 만료.

2월 21일 - 2022년 2월 21일부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에 새 소장으로 한국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의 박상태(1969년생)팀장이 부임. (본지 2월 18일호)

2월 22일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2년도 시행에

따라 3월 2일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주최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발표. (본지 2월 25일호)

2월 24일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군사작전을 선포. (본지 2월 25일호)

2월 26일 - 아나와 유·청소년 창작회관에서 2022년 러시아 다민족 문화유산의 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입춘대길>체험행사 개최. (본지 3월 4일호)

3월 5일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펼침. (본지 3월 11일호)

3월 6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새로운 한인단체 소개가 있는 후, 신규 단체 주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 (본지 3월 11일호)

3월 8일 - 여성의 날 기념으로 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야나)의 주최로 가가린 레스토랑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명절 행사 개최. (본지 3월 11일호)

3월 2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동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제로 회의를 열. (본지 4월 1일호)

4월 8일 -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공동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사할린 국립대 본관에서 2년 만

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됨. 제주에 관한 경시대회에 110여 명 참가. (본지 4월 15일호)

4월 9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 운영위 회의가 소집되어 1/4분기 사업보고 및 기타 문제를 심의함. (본지 4월 15일호)

4월 22일 -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에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지역 협력: 공동 문제 해결 및 연구 통합'이란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 한국어 교육 등 발표가 많았음. (본지 4월 29일호)

4월 2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씨름협회 (회장 춘 알렉세이) 주최로 유·청소년 씨름대회를 개최. (본지 4월 29일호)

4월 3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 한인 어르신 약 70명을 모신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동포 1세대를 위한 노인 휴식센터(공식명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짐. (본지 5월 6일호)

5월 7일 - 어버이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 전통적인 노인정 모임 개최. (본지 5월 13일호)

5월 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열린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한민족 문화 예술과학생들의 졸업발표 공연 '천동의 모래의 환상' 감동 선사. (본지 5월 20일호)

5월 15일 - 사할린주 미술박물

관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한민족 문화의 날을 개최. (본지 5월 20일호)

5월 19일 - 한국 신경숙 작가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독자 독후감 공모전 결과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발표. (본지 5월 27일호)

5월 24일 - 국제박물관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 논나 라브리크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관장 올가 무라토프)에 한국 동광의 운학 문양의 청자 화병을 기증. (본지 5월 27일호)

5월30일 - 러시아의 이웃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제로 한 <훌륭한 이웃>도서전이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림. (본지 6월 3일호)

6월 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귀빈들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거행. (본지 6월 10일호)

6월 15일 - 안산 고향 마을에서 전국 사할린 귀국 동포 연합회의 주관으로 <사할린 귀국 동포 연대기> 출간 기념회 개최. <사할린 귀국 동포 연대기>는 사할린동포 강제 징용 후 영주귀국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22년 까지의 연대기를 기록. (본지 6월 17일호)

5월 말에 사할린 한인단체들이 해마다 작성하는 결의문을 대한적십자사에 보냄. 6월 30일 한국 적십자사가 일본 측과 가진 회의에서 결의문을 전달. (결의문 내용 본지 7월 1일호)

6월 30일 - 한국 영주귀국 지원 신청 마감.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본지 7월 8일호) **(8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성탄절에 '우리의 참전을 위한 사할린' 행사 조성

성탄절을 맞아 동부군관구의 동원병을 지원하러 사할린주의 주민과 여러 민족 대표들이 '우스페놉스키' 동부군관구 훈련소를 방문하여 '사할린 자 나쉬흐(우리의 참전을 위한 사할린)'행사를 조성한 가운데 이 거룩한 날 방문자들이 병사들을 위해 각기 전통요리를 마련했다고 동부군관구 홍보부가 전했다.

명절 식탁에는 러시아 요리, 사할린 한인 대표들이 준비한 전통 나물 무침, 사할린의 타타르인과 키르기스인들이 제과들을 준비했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과일을 제공했고, 타지키스탄 자원봉사자들은 전통을 따라 민족 음식인 필라브(플로브)를 준비했다.

Очередная акция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состоялась в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держать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ВО приех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диаспор и народн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на полигоне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ВО) "Успенковский"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акция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В этот святой праздник поддержать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ВО приех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диаспор и народн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приготовил для защитников блюда свое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был наполнен блюдами русской кух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готов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е салаты, татары и киргизы Сахалина привезли сладкие угощения, азербайджанцы передали

фрукты, а таджикские волонтеры, по уже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приготов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плов.

유즈노사할린스크의 2호 리체이 학교가 전국 우수학교 200위 안에 들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2호 리체이가 2021년 -2022년 학기 동안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재능개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 우수학교 200위 순위에 올랐다.

극동연방관구 지역들 중에서 5개 행정자치 지역들이 순위에 올랐다고 '시리우스' 교육센터가 전했다. 극동연방관구 11개 행정자치지역들 중 200위 순위에 5개 지역들- 사할린주, 연해주, 야쿠치야, 캄차트카, 추코트카-에서 각각 1개 학교들이 올랐다.

이 순위는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한 행사, 지역 예선, 본선 국제 학생올림픽아드 결과들을 가진 학교들의 독립적인 정보와 외부 객관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순위가 작성됐다.

Лицей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пал в топ-200 лучших школ

Лицей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пал в топ-200 школ с лучш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в развитии таланта школьников в области математики 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за 2021-2022 учебный год.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ФО в рейтинг попали 5 субъект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ириус".

Из 11 субъектов ДФО в топ-200 попали 5 регионов, по одной школе в кажд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Якутия, Камчатка, Чукотка.

Рейтинг построили на внешних объективных, не зависящих от школ данных — результаты мероприятий, в которых ученики проявили выдающиеся способ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лимпиад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заключительных этапах.

<로마노브> 멀티미디어 익스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시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박물관에서

<로마노브>(12세 이상) 멀티미디어 전람회 작업을 새롭게 조성했다. 2022년에 개최됐던 전람회 후, 전람회는 더욱 찬란한 멀티미디어의 요소들이 만들어낸 탄탄한 기획 덕분에 더욱 새롭게 펼쳐졌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로마노브> 더욱 새로워진 전람회의 첫 관람이 2023년 1월 4일에 시작했다. 예전처럼 사할린 역사박물관 관람객들은 <로마노브. 폭동의 탄생> 주제 행사를 접할 수 있었고, 304년 러시아를 통치했던 대러시아 왕조에 대한 새로워진 전람회를 볼 수 있다.

Мультимедийную экспозицию "Романовы" вновь можно увиде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озобновили работу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экспозиции "Романовы" (12+). После реэкспозици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течение 2022 года, выставка заиграла по-новому благодаря мощным проекторам, сделавшим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элементы более ярким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е экскурсии по обновле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Романовы" прошли 4 января 2023 года. Для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как и раньше, доступно темат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Романовы. Рожденные Смутой" (12+).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увидеть экспозиции о великой русской династии, правившей Россией 304 года в обновленном качестве.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새로운 통합 보조금 위해 수천 통의 신청서 제출

대부분의 신청서들은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제출됐으며, 사할린과 쿠릴의 임산부들은 새로운 지원책을 조성하길 원하고 있다.

(6면에 계속)

러시아에서 필수의료보험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독감 검사 시작

올겨울 러시아 전역에 돌고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 가운데 독감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다. 이들 바이러스 중 가장 교활한 '돼지독감(H1N1)'이 사할린주를 포함해 러시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170만 명이 감염됐다.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러시아에 전염병 상황을 긴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감은 현재 병세가 더욱 중증으로 치달으며, 치명적 위험으로 구분되는 만큼 코로나19보다 큰 피해를 입혔다. 독감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백신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유증 형태의 백신을 러시

아 학자들이 쌓아온 경험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해졌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필수의료보험에 따른 의료지원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 보장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실시했다.

병원 방문 및 입원 시 또는 호흡기 질환의 심한 증세로 환자의 자택으로 의사의 왕진 시 독감과 호흡기 검진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만성 질환자, 60세 이상 및 6세 이하의 고위험군 환자, 격리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임상진료는 증상이 있을 시 코로나19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치의가 결과를 받는다.

특히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게 중요하다. 검체물을 연구소로 송달하는 데 하루도 안 걸리며, 병원으로 검사와 결과 전달까지는 최대 하루가 걸린다.

"러시아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주요 종에 대한 대규모 검사 시작을 통하여 우리는 의료보험에 따른 별도의 검진 절차 방식들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빈도를 몇 배로 확장시켜 발견하여 제때 치료를 하도록 하고, 중증으로 진전의 위험을 줄이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러시아 보험자연맹 부회장 드미트리 쿠즈네초프가 강조했다.

급성호흡기질환 특성 확인을 위한 시험 적용 실습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개발되어 유사한 원리로 독감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사할린 동포, 29개 내단지에서 2600여 명 거주

사할린 귀국 동포들은 전국의 29개 LH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 267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거급여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고향마을 1단지 766명이 거주한다. 이어 인천 남동구 논현2단지 118명 및 김포 통진 109명이다. 100명 이하인 단지는 24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1개 단지 147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6개) 488명, 부산김해(3개) 269명, 충남(3개) 203명, 중

북(3개) 151명, 강원(1개) 45명 및 서울(2개) 39명이다.

영구 귀국 사할린 동포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1930~40년대 사할린의 탄광 등지로 징용돼 갔다 독립 후 곧바로 귀국하지 못했다.

2000년 2월부터 귀국하기 시작해 안산시 고잔동의 고향마을 아파트 1단지로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사할린 동포 전용 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한 공공임대 단지다. 현재 약 480세대 760여 명의 사할린 동포 및 동반 가족들이 거주 중이다.

(한국 아파트 신문에서)

연초에 대한적십자사가 2022년도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입국 안내문을 전했다. 아래에 이 내용을 게재. (본사 편집부)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입국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러시아와 한국입국 항공노선 중단으로 인하여 입국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입국 등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대상자 국내 입국 지원

가. 대상자 : 영주귀국자 총 350명

○ 국내 기 입국자 121명 / 러시아 현지 거주자 229명 (2022.12.31.)

나. 입국방법 : 개별입국 또는 대한적십자사 인솔자 동행 입국 지원(희망시)

1) 개별입국

- 기한: 2023.2.28일까지 입국 가능

- 주택 배정 등 사유로 인해 추후(3월 이후) 입국할 경우, 2.28. 이후 적십자의 입국시기 조사 시 정확한 입국일 통보요망

2) 대한적십자사 인솔자 동행 입국 지원

- 입국자 대부분이 고향자임을 감안, 2월 중 인솔자 동행 입국지원 1회 추진

- 입국 시기: 2월 중 (2.14. 이후)

※ 배편 사정 등을 고려, 추후 일정 등 상세내용을 별도통보 예정

- 단, 러시아 현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신규 신청세대의 경우(한국내 거주지가 없을 경우) 입국 후 거주지가 바로 배정되지 않음을 감안 요망

3) 대한적십자사 인솔자 동행 입국 수요조사 실시

- 조사시기 : 안내문 배포일 ~ 2월초

- 실시방법 :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한 인솔자 동행 입국 희망자수 조사

※ 대상지역 재외공관은 인솔자 동행 입국 희망 수를 파악하여 회신요망(수신처: 재외동포과, 적십자)

- 수요인원이 선박 탑승가능인원 초과시 고향자(생년월일순)우선 배정 등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운항 선박 안내

○ 블라디보스톡→동해항 입국 배편

- 1.26.까지 선박 운항 후 1.27.부터 2.13.까지 운항 중단(선박 수리예정)

- 2.14.부터 운항 재개 예정

★ 선박 수리기간 지연에 따라 운항 재개 일정 변동 가능

★ 현재 2월 중 운항 세부 스케줄 미정

★ 예약 홈페이지 <http://www.dwship.co.kr/ko/main/>

2. 대상자 임대아파트 배정

○ 영주귀국자 임대주택 확보시기(LH) : 2023.2.28.까지(예정)

- 2.28. 이후 신규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배정

- 입주준비(청소 등) 마감 이후 실제 입주 가능

- 임대주택 확보는 2.28 까지이나 배정은 추후 가능하므로, ※ 국내 거주지가 있을 경우, 2월까지 입국 요망
- ※ 국내 거주지가 없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사전 연락하여 입국시기 등을 협의할 것을 권장(3~4월 중 주택 배정 예정)
- ★ 대상자 희망지역 임대아파트 물량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확보 및 배정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구분	2023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임대아파트 확보시기							LH
신규세대 임대아파트 배정							LH
신규세대 아파트 입주준비 등							대한적십자사
영주귀국 대상자 행정업무 지원							대한적십자사

3. 대상자 입국 경비 지원

가. 대상자 초기정착비 지원 : 총 1,850,000원

나. 지원내역

1) 항공료(입국경비) : 1인당 450,000원 지원

- 신청접수 당시 국내 기거주자는 지원 불가

- 배편 및 항공노선 이용 시 추가 발생 금액 지원 불가

2) 집기비품비 : 대상자 전원 1인 1,400,000원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합계
	항공료(이동 경비)	집기비품비	
국내 기 거주자	지원불가	1,400,000원	1,400,000원
해외 입 국자	450,000원	1,400,000원	1,850,000원

※ 2021년도와 지원 기준 동일

※ 불임1 : '2022년도 영주귀국자 입국경비 지원 여부 예시' 참조

다. 지원방법 : 대상자 입국 확인 후 은행 계좌 지급

※ 개인 및 국내 1세 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4. 대상자 국내 정착 지원

가. 국내 거주지 이동 차량지원

1) 적십자 인솔 시 입국 대상자 국내지역 일부, 이동 차량 지원

※ 동해항→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 이동 차량 지원

※ 서울, 경기 이외 지역 자체 이동 요망

2) 개별 입국자의 경우 별도 차량 지원 없음

나. 대상자 입주지역 지자체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1) 사할린동포 지원 캠프 운영 예정(운영장소 및 일자 미정)

- 2) 국내 기입국자 및 영주귀국자 복지지원 서비스 지원
- 3) 대상자 건강검진 및 국적취득 신청 지원
- 4) 국내 외국인거소신고증 신청 및 통장개설 신청 등

※ 2.28. 이후 본격적인 지원 업무 실시 예정

다. 조치사항

1) 개별 입국자는 입국 후 대한적십자사로 반드시 연락

- 담당자 : 최소남 / 박정아 / 박병희(02-3705-3795~6,3797)

- 국내 입주지역 사할린동포 회장을 통한 연락 가능

2) 러시아 입국 대상자는 한국 입국 전,

- 러시아 발급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및 번역본 상부·모·배우자 등의 인적사항이 한국 발급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의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 동일 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 대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국내 외국인거소신고증 및 한국 은행 통장 있을 경우, 반드시 지참하여 입국

★ 한국 국적취득과 정착지원(특별생계비) 관련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반드시 지참하여 입국 요망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분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2022년도 영주귀국 입국 경비 지원 여부 예시

접수 당시(신청서 기재사항)			현재 거주지	지원여부	
접수일	접수기관	거주지		2022 (정산)	2021 (항공권 제공)
4월 1일	대한적십자사	국내	국내	X	X
4월 1일	대한적십자사	국내	사할린	X	X
4월 1일	대한적십자사	사할린	국내	O	X
4월 1일	대한적십자사	사할린	사할린	O	O

CASE 1. 4월 1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청서 접수 당시 국내 거주자였으며,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영주귀국자는 입국경비 지원 대상 아님

CASE 2. 4월 1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청서 접수 당시 국내 거주자였으나, 현재

사할린 거주 중인 영주귀국자는 입국경비 지원 대상 아님

CASE 3. 4월 1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청서 접수 당시 사할린 거주자였으나, 현

재 국내 거주 중인 영주귀국자는 입국경비 지원 대상임

CASE 4. 4월 1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청서 접수 당시 사할린 거주자였으며, 현

재 사할린 거주 중인 영주귀국자는 입국경비 지원 대상임

※ 2021년도 지원 기준 동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ветеранам остров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вручают подарки к Дню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новогодние дни ветераны журналист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лучают от коллег приятные сюрпризы: подарочные наборы со сладостями и полезными для здоровья напитками. К подаркам прилагается именная открытка с таким текстом:

«Примите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и тёпл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Новым годом и нашим общим праздником – Днём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Мы помним и ценим ваш вклад в островную журналистику, ваши яркие, талантливые материалы.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любви близких людей, прекрасного праздн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Галина Васильевна Крицкая из рода Поронайска, получившая подарок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присл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видеофайл с такими словами: «Дорогие коллеги, всё наше журналистское содружество! Я тронута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ожидала,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сюрприз!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желаю всем мира, счастья, любви и главное - здоровья!»

А 85-летний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Савчен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казал, что ему особенно дороги минуты общения с младшими товарищами по цеху. Ведь несмотря на возраст, ветеранам хочется быть в курсе событий, происходящих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ообществе.



Николая Ивановича Савченко поздра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Решение поздравить ушедших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коллег было принято в декабре, на последнем в 2022 году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Средст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одарков выделены из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акции участвуют члены Президиум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а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 сотрудники местных газет.

Сахал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2023 г.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зослал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выезжающих на ПМЖ(2022 г.)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краткий перевод данного письма. Перевод предоставле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ей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выезжающих на ПМЖ (2022 г.)

1. Выезд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1)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 Срок выезда: рекомендуется до 28.02.2023 года

- В случа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выезда, просим сообщить Консульству точную дату выезда

2) С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лицом из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на пароме (Владивосток-Донгхэ)
- Планируемая дата выезда: после 14.02.2023г. (*точная дата будет сообщена позже)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ранспорта от порта Донгхэ до Сеул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и нескольких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Остальные добираю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за свой счет.

*Т.к. распределение квартир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апреле, гражданам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впервые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е на ПМЖ,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им н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место време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жить в гостинице за свой счет. Тем, у кого нет места време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можно прибыть в РК после рас-

пределения жилья по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се процедуры (оформление ID-карты,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марта, тем,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Корею после 28.02.2023г.,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формлять ID-карту,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и т.д.

2. Частичная выплата расходов на билет

Сумма: 450 тыс.вон(около 360 долл.США, или около 25 тыс.руб.) на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аты и способа выезда.

Способ выплаты: перечисление на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РК (возможно перечисление на личный счет и счет родителей).

3. Проведение опроса относительно способа выезда в РК

- С момента объявления до начала февраля Консульств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опрос

- В случае, если желающих поехать вместе с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лицом из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будет больше, чем возможно, список будет составлен с ограничением по дате рождения

На Луну и на Марс: Сеул рвется в космос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конкурента ведущим космическим державам

Военны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извели успешный запуск твердотопливно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которая в будущем будет выводить спутники на орбиту. Это событие, случившееся 30 декабря, в Минобороны страны назвали прорыво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апуск стал лишь одним из шагов куда более амбициозной 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мой Сеулом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евращению в полноцен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Уже в недалеком будущем Южная Корея, которая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считалась новичком в этой сфере, сможет бросить вызов признанным грандам, потеснив их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услуг косм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Тревога в Сеуле

За сутки до Нового года с морской платформы недалеко от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Южной Кореи, в местечке Анхын, где расположен главный военный ракетный полигон страны, в небо ушла приземистая белая ракета.

Запуск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в шесть часов вечера, когда наступили сумерки, ракета улетела вертикально вверх на 450 км, потому на фоне темного неба ее было очень хорошо видно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не только Южной Кореи, но и КНДР и даже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Вольно или невольно, но 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доставили немало хлопот корейской полиции и Службе спасения, так как тысячи перепуганных корейцев тут же бросились звонить и сообщать в компетентные органы о необычном явлении. Версий было немало — от «лет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нопланетян» до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итоге местным телеканалам пришлось даже давать экстренные выпуски новостей, разъясняя, что ракета была «своя» и прошли успеш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ого носителя.

Светящиеся от удовольств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были несколько огорочены волной кр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чье недовольство можно обозначить одной фразой: «Предупреждать же надо!». Впрочем, настроение военным это сильно не испортило: они сослались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блюдать секретность, но всё же извинились, пообещав больше не пугать сограждан, хотя и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запуск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дить и достаточно часто. Сам запуск был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 как большой успех и даже прорыв по части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твердотопливных ракет-нос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 2025 года должны начать выводить на орбиту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спутники. Некоторые наблюдатели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старт неслаучаю был произведен так, чтобы он запомнился всем и надолго. Возможно, военные РК хотели показать народу: хотя соседняя КНДР регулярно запускает ракеты, но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не сидят сложа руки, тоже заботясь об укреплении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родины.

Через пару дн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в деталях объяснило, в чем именно заключался прорыв.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военных, старт проводил Научный институт обор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ADD) РК, а нынешний запуск стал продолжением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которую тоже успешно протестировали в марте 2022 года. На этот раз были запущены со второй по четвертую ступени. В ходе запуска были проверены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ракеты, а также технологии сгорания твердотопл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различных ступеней, отделение обтекателя, разделение ступеней, управление ориентацией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последней ступени, отделение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и (макета спутник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с помощью ново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еул с 2025 года начн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водить на низкую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спутники весом до 500 кг.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технологии имеют широкое военное и мирное космическое приложение и позволят не только укрепить боевую мощь ракетных войск, улучшить систему сбора разведанных РК, но и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Кореи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услуг по выводу спутников на орбиту

Лунная дорожка

Военные РК назвали запуск 30 декабря прорывом, и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Вместе с тем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таких корейских прорыв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пару лет в космосе произошло уже немало.

Наверное, символически более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21 июня 2022 года, когда со второй попытк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 помощ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зданно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Нури», вывела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несколько спутников. Именно тогда Южная Корея вошла в число держав, которые умеют полность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здавать спутники, ракеты-носители и доставлять полезную нагрузку в космос.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ПРИГЛАША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17 января 2023 г. в 18.00 на встречу с сахалин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й ВIKТОРИЕЙ ЦОЙ.

Тема встречи: «О ПИСАТЕЛЬСТВЕ как возможност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рассказать свою личную историю»

Место встреч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онференц-зал, 9 этаж

·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 До начала встречи будет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книгу Виктории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кол-во ограничено)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Установлены имена 745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вших в шахте Садо

Установлены имена 745 корейцев,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а работу в шахте Садо, которую Токио стремится занести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По словам Чон Хе Гён, представителя гражда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ам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она выявила имена рабочих на основании трёх списков, по которым им выдавали сигаретные пайки. Владельцы шахты признают, что в 1945 году на ней работали 1.519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они назв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имена лишь 150 человек.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на Соллаль обойдётся в среднем в 300 тыс. вон

В этом году закупка продуктов для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на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обойдётся южнокорейцам в среднем в 294.338 вон (231 доллар) на семью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Это на 3,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Если закупать продукты на рынке, то затраты составят 240.488 вон (189 долларов), в сетев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 244.763 воны (194 доллара), в сетев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 284.818 вон (225 долларов), в сетевых универсамах - 468,840 вон (370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Ассоциаци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К, представив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2-3 января. Были учтены цены на 25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Зарплата госслужащих высшего ранга заморожена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К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заморозить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высшего ранга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3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рамках сокращения расход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обеспеч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дисциплины. Решение о замораживани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касается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выше четвёртого разряда, то есть, от заместителей директоров департаментов д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Хан Док Су 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При этом госслужащие выш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должны добровольно сократить свою зарплату на 10%.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довая зарплата президента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ит 245 млн вон (193 тыс. долларов). Однако зарплата госслужащих пятого разряда и ниже будет повышена на 1,7%. Первый разряд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а девятый - самым низким. Между тем, еж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таршего ефрейтора (капрала)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с 530 до 785 долларов, а к 2025 году - до 1.175 долларов.

РК готов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ассматривает меры расширения кредитной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и укрепления системы отпусков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готовясь к переходу страны к «эпохе сверхстарого общества» в 2025 году. Выступая 5 январ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блем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На Гён Вон отмети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нвестиций в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йствующей политик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По её слова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эффективность которых должны почувствовать подростки и молодые семьи.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меры могут коснуться отпусков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и сокращения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при сохранении уровня дохода. Допуск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нижения давления на молодые семьи, связанного с погашением кредитных задолженностей. На Гён Вон отмети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единого профильного центра, способного проводить масштабную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политику.

В 2023 году РК увеличит экспорт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Экспорт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довести в этом году до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а к 2027 году до 22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5 января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К культурным контентам относятся продукция, защищённая авторским правом и доступная для публики.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публикации, музыка, игры, радиопередачи, кинофильмы, мультфильмы, реклама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 2021 году экспорт д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в 12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этом году, объявленном Годом посещения Кореи,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мерено обеспечить поток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10 млн человек. Помимо этого,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культурной и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инвалиды, пожилые люди и другие. Министр Пак По Гюн пред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у план формирова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котором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плекс Чхонвадэ.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явили, что смогут созда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за 1-2 года

В случае принятия на этот счет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жет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ЯО) за один-два года. Только ЯО может стать эффективным средством сдержив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уже давно обзавелась собственными атомными арсенала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своей статье в газете "Чаю ильбо"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сотруд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и Ли Бом Чхан.

Указывая на возросшую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угрозу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которая,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Ли, уже давно не боится заявлений о "неизбежном возмездии" со стороны США и союзников, эксперт призывает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это с позиций "баланса страха". По мнению Ли Бом Чхана, который ранее занимал пост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крупного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РС РК), а сейчас, выйдя в отставку, преподаёт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Чунан, на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НДР необходимо отвечать только своим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Ли при этом выражает сомнения в эффективности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США, приводя в качестве аргумента высказывания француз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Шарля Де Голля, который в оправдание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ЯО в свое время саркастично спросил у США: "А готовы ли вы ради Парижа пожертв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м Нью-Йорком?"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сле ухода США из Афганистана развились и усилились опасения на тот счет, что при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ях Вашингтон может бросить и южан, если сочтет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слишком затратным и опасным делом. Южные корейцы боятся, что если КНДР решит напасть на Юг и пригрозит США ядерным ударом по их крупным городам в случае попытки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Южной Корее, то Вашингтон может решить пожертвовать

Югом ради гарантии выживания своих мегаполисов. В этой связи в РК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что только собственное ЯО может стать реальным ответом на возможные попытки КНДР развязать войну.

Ли Бом Чхан приводит данные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который был проведен среди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в 2019 г. Согласно ему, более 93 процентов южан уверены, что Север никогда и ни под каким предлогом не пойдет на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При этом более 69 процентов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создания Югом собственных арсеналов "ядерного возмездия".

В этой связи, как призывает эксперт,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необходимо тщательно взвесить всю ситуацию и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в пользу создания своего ЯО, что, как очевидно, поддержит народ. Ли, ссылаясь на мнение экспертов-ядерщиков,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для РК, имеющей свою мощную научную, инженерную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базу, созда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е станет большой сложностью. Если "отмашка"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дана, то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нет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буквально за один-два года. Эт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бывшего сотрудника разведки, обеспечит гарант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и позволит передать потомкам Южную Корею процветающей и живущей с ощущением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защищенности.

Отмети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регулярные призывы по поводу созд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о о том, что оно намерено продолжать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ядерног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от угроз КНДР Сеул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развитие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обыч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РК, а также на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й союз с США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обороны в рамках трех стран -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2023-2024 годы объявлены "годами посещ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ле трехлетнего вынужденного перерыва, вызванного пандемией COVID-19, Южная Корея вновь начинает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развивать индустр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стимулируя приток зарубежных гостей.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ланах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в ходе доклада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на заседании аппар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де обсуждалась стратегия и основные ц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новый год.

Согласно обнародованно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ынешний и следующий, 2024 год названы "годами пос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текущий год поставлен план довести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до 1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что позволит РК заработать 16 млрд долл. К 2027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зарубежных гостей должно уже составить 30 миллион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ые меры по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помогут Южной Корее увеличить

доходы от отрасли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 с 10,3 млрд в 2021 году до 30 млрд долл. в 2027 году.

Ради достижения этих амбициозных цел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тратит в этом году 790 млрд вон (около 625 млн долл.) на реклам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где будут продвигаться культурный контент, связанный с РК, а также сами по себе визиты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коло 300 млрд вон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на различные меры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серьезно пострадали от ограничений, введенных в связи с COVID-19 и серьезно ударивших по отрасли.

Отметим, что вплоть до 2020 года, когда были введены пандемийный ограничения, наблюдался неуклонный рост поток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Южную Корею. Власти страны ввели ряд стимулов, в том числ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упростить визиты в стран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РК упрощает процедуру натурализ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 эт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приступает к реализации системы ускоренной натурализ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из числа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сфере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Он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ускоренный процесс выдачи таким кадрам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о запросу научных кругов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действовала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с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В её рамках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вшие степени магистра и доктора наук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ведущ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передовой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на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стране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руководителя учреждения. При наличии опыт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й специалист мож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а при демонстрации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та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процесс натурализ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лучивших степени магистра и доктора наук внутри страны, занимал более шести лет, в течение которых нужно было пройти шесть этапов процедуры. Ускоренная система сокращает эту процедуру до трёх этапов и трёх лет.

KBS World

В РК решают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рабочих в судостро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судостроение уже давно испытывает трудности в связи с нехваткой рабочих рук. В этой связи оформление рабочих виз иностранцам сокращено с четырёх до одного месяца.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удостроителей, из-за роста заказов нехватка рабочи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к концу года 14 тыс. человек.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планировало пригласить 1.621 иностра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в том числе, сварщиков, маляров и электриков. Однако по состоянию до 12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изы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получили лишь 412 человек.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восьми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ях работают 93.500 человек.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6,4%.

KBS World

На Луну и на Марс: Сеул рвется в космос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конкурента ведущим космическим державам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Помимо корейцев это могут сейчас делать ещё только шесть стран — Россия, США, Китай, ЕС, Япония и Индия. Как бы это пафосно не звучало, но 21 июня 2022 года Южная Коре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ткрыла «свою космическую эру», войдя в нее на собственной ракете-носителе «Нури». Проект «Нури» реализовывался с 2010 года,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накладок, задержек, но успеха корейцы достигли весьма быстро, сумев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опыт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по выходу в космос, так и наработки из предыдущего проекта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Наро», который реализовывался совместно с Россией.

В августе 2022 года Южная Корея получила повод сообщить о новом космическом прорыве — началась практическа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освоения Луны. Тогда на американской ракете-носителе в космос был выведен корейский косм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Танури» (Danuri), который затем начал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сторону есте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Земли.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Танури» успешно добрался до орбиты Луны и начал передавать первые съемки ее поверхност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н будет обследовать Луну с высоты 100 км, делая подробные фотографии поверхности и подбирая площадку для призем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лунохода.

Параллельно Южная Корея ведет актив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 сфере воен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космоса и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здавая новые, более мощные ракеты и планируя увеличить группировку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спутников. Так, 1 октября 2022 года в ходе празднования 74-й годовщины созда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К был показан рекламный ролик, в которо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проведенные ранее секр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РК «Хёнму-5».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она способна доставлять боевую часть (БЧ) весом 8–9 тонн на расстояние до 300 км. За такую гигантскую боевую часть новый вид «Хёнму» назвали «ракетой-монстром». Она до сих пор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мощной из всех имеющихся на вооружении РК. Если же вес БЧ у «Хёнму» снизить до 1 тонны, то ракета сможет поражать цели на удалении до 3000 км. Это означает выход удар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РК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 у Кореи появилась ракета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держать под прицелом не тольк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о также Китай, Россию, Японию и ряд других стран.

Можно назвать немало других примеров успешных запусков и испытаний, которые Южная Корея осуществила за последние пару лет. От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типов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до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100-летний юбилей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а Марсе

Если же говорить про планы Южной Кореи в космосе, то тут проще назвать те направления, в которых корейцы пока не планируют засвети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очень и очень амбициозна.

Во-первых, корейцы намерены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уже проверенную систему «Нури». До 2027 года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еще четыре запуска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бкатки, первый из них состоится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На это заложен бюджет в 687,4 млрд вон (около \$530 млн). В процессе стартов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планируется вывест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3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спутников.

Во-вторых, уже сейчас ведется создание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носителе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KSLV-III,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тать основ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рабочей лошадкой» Кореи ближайшего будущего. На проект выделено 1,9 трлн вон (около \$1,5 млрд). У новой ракеты будут пять двигателей мощностью 100 тонн каждый в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и два двигателя мощностью по 10 тонн на второй ступени, при возможности вывести в космос до 10 тонн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и. Первый запуск KSLV-III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030 год. Эта куда более серьезная ракета-носитель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Кореи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ь количество доступн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ос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третьих,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освоении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ей нашей планеты — Луны и Марса. В 2032 г. корейцы планируют высадить на Лун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аппарат. Ес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нури» к Луне повезла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кета, то десять лет спустя это должна сделать уже корейская система KSLV-III. Если это всё удас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и Р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ставит луноход на поверхность есте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Земли, то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танет четвертой после СССР/РФ, США и Китая державой, которая смогла направить свой аппарат на Луну. Сейчас это звучит почти фантастически, но Южная Корея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даже добычу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на Луне.

В-четвертых, не избежит «корейского нашествия» и Марс. Согласно озвученным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Юн Сок Ёлем планам, корейцы намерены отметить сто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страны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высадкой на Марсе. Марсоход Кореи должен начать работу на Красной планете с 2045 год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ибыльности, рентабельности 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конкурен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ланирует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привлекать в эту сферу частные компании, передавая им технологии и обеспечивая финансовую и прочую поддержку.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были одобрены т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а, которые подводят под все эти амбициозные планы систем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конкретную базу, разбивая их на более мелкие задачи и цели. В частности, определены три региона страны —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Южный Кёнсан и город Тэджон —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ластеров развития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овинция Юж-

ная Чолла, где расположен космический центр Наро, позициониру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ы для запусков — здесь построят несколько стартовых площадок и центр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пециализацией Южного Кёнсана станет разработка и создание спутников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для этого уже имеются.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регионе появится профильны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оздания спутниковых аппаратов. Тэджон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ластера (в городе базируется институт KAIST).

До 2030 года Сеул инвестирует 1,4 трлн вон (около \$1,1 млрд) в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ети спутников наблюдения за регионо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наземн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ими. В четвертом среднесрочном базовом плане РК по освоению космоса заложены уже упомянутые высадки на Луну (2032 г.), Марс (2045 г.), доведение к 2027 году разме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на космическую сферу до 1,5 трлн вон (около \$1,17 млрд).

Дерзкий новичок

Еще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Южную Корею называли новичком на ниве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Если брать историю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то так и есть —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мало кто верил, что корейцы могут серьезно рассуждать и строить планы полетов на Луну, Марс, а также создав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Но уже сейчас видно, что многие планы реализуются на практике, причем очень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И здесь хочется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еще один аспект, которому у корейцев стоит поучиться. Ракеты и космос им нужны не только для престижа и военной отрасли (хотя, безусловно, эти факторы также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но такж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ибыли и развития соб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Космическая отрасль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тех сфер,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тать новыми локомотивами рос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подхватив эстафету у направлений,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удостроени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нефтехимии и других.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Корея собирается стать активным игроком на рын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смических услуг, составив конкуренцию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грандам этой отрасли — США, ЕС, Китаю, Японии, Индии и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в период с 2010 по 2020 год в мире было выведено 2663 спутника, но в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ь лет различные страны мира собираются вывести в пять раз больше — 12 510. Объем рынка запуск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компании Fortune Business Insights, увеличится с \$14,21 млрд в 2022 году до \$31,9 млрд в 2029 году. Согласно оценкам компании Morgan Stanley, составлявшая в 2020 году \$251 млрд мировая космическая индустрия к 2040 году вырастет до \$1,100 трлн.

И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олучить значительную долю миров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пирога» как путем запуска спутников на коммерческой основе, так и путе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ругих услуг. Эта задача будет возложе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частные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так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монополизировать отрасль, а наоборот, будет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привлекать частный бизнес. В том же четвертом базовом плане развития косм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заложено увеличение к 2045 году до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десять раз — с нынешнего 1% до 10%.

Сначала косметика, а дальше — космос

В 1980-е годы в США бы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издевательские шутки по поводу корей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Hyundai, в них высмеивали качество машин. Вот один пример: «Как можно машину Hyundai разогнать до скорости 100 км/ч? Есть только один способ сделать это — столкнуть ее с обрыва». С начала 2010-х в тех же США автомобили Hyundai стали регулярно фигурировать в списках лучших авто года — от премиум-класса до грузовиков.

Точно так же сомневались многие, когда пару десятилетий назад корейцы решили производ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косметику и развивать (в том числе с расчетом и на зарубежную аудиторию) свою популярную музыку K-POP. Если в 2000-х годах можно было спросить, кто знает корейскую косметику, кто знает K-POP, вот французская, японская косметика — да, американская эстрада, J-POP — да, но корейская?! Теперь же надо формулировать наоборот: «Неужели есть те, кто не слышал K-POP и кто не знает корейскую косметику?!»

Что-то схожее происходит в сфере косм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где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явно прошла этап шутки про обрыв. Пожалуй,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мы сейчас наблюдаем, как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происходит быстрое становление еще одной полноцен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державы — Южной Кореи.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подобные заявления были бы встречены со скепсисом, 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ные за эти полтора-два года успехи в самых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осм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 от боевых ракет до направления аппаратов к Луне — доказали, что Сеул не бросает слов на ветер.

Нельзя говорить, что все идет без сучка и задоринки, как и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ставить Корею в этой сфере на один уровень с США, Россией, Китаем и прочими гигантами индустрии. Тем не менее, абсолютно точно, что у Южной Кореи уже есть своя 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а и развивается своя мощная научн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база отрасли, ес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планы движения вперед, а также имеются силы, кадры и средства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сех задумок. Мировой космический клуб пополнился еще одной страной — Южной Кореей, которая очень скоро начнет теснить корифеев отрасли.

(News.ru)
Олег Кирьянов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러시아 사할린주 연금 및 사회복지재단 부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통합 보조금 책정에 대한 신청서 1161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1105건은 17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고, 56건은 임신부에 대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지만 서류 접수는 2022년 12월28일에 고스슬룩 사이트에서 시작했다. 1월4일(수)에는 사회복지재단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재단의 홍보부가 전하는 바로는 가정에 3세 이하의 첫 아이에게 지급되는 매월 수당을 위한 신청서도 41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2022년 연말에 태어난 아이를 가진 부모는 예전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수당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통합 보조금은 5가지 지급을 대신하게 됐는데 이는 첫째 자녀와 3세 이하의 셋째 자녀 대상, 3세 -7세 이하 자녀 대상, 8세 -17세 이하 자녀 대상, 산모 대상 보조금이다. 지원책 책정의 주요 요건은 저소득층의 가정인데 가정에 1인 평균 소득이 사할린 지역에서 최저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신청서 검토 시 재산 기준과 체로 수익 규정이 적용된다. 러시아에서 10일간 새로운 통합 보조금 신청에 50만 건 이상이 제출됐다.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дали свыше тысячи заявлений на новое единое пособие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заявок пришло от семей с детьми до 17 лет. Также оформить нов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хотят беременные сахалинки и курильчан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тделения фонда пенсион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с 28 декабря по 6 января поступило 1161 заявление на назначение единого пособия. Из них 1105 заявлений приходится на детей до 17 лет,

еще 56 — на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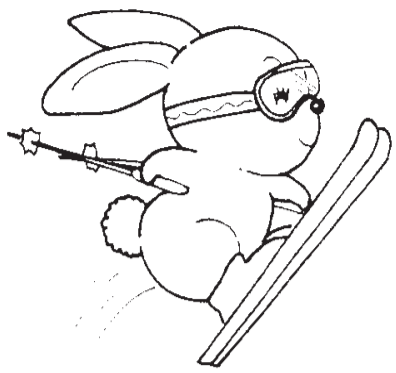
Пособие назначается с января 2023 года, но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открылся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еще 28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В среду, 4 января, жители могли обратиться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лично в клиентские службы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добавили, что также принято 41 заявление на ежемесяч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на первенца до 3 лет. Родители, у которых ребенок появился до конца 2022 года, могут выбрать — оформить это пособие по старым или п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Единое пособие заменило сразу пять выплат: на первого и третьего ребенка до 3 лет, на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и от 8 до 17 лет, а также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Главным условием назначения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являются низкие доходы: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статок в семье не должен превышать 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в регионе. Также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заявлений применяются имущественный критерий и правило нулевого дохода.

Всего за 10 дней в России подали более полумиллиона заявлений на новое пособие.

(с а х а л и н с к и м л и т е р а т у р н ы м ж у р н а л о м)



계묘년

음력설 1.22
 한식 4.6
 단오 22
 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추석 9.29
 성탄절 12.25



2023년

	1월 음력 12-1월					2월 음력 1-2월					3월 음력 2월(윤)				
월	2	9	16	23	30	6	13	20	27	6	13	20	27		
화	3	10	17	24	31	7	14	21	28	7	14	21	28		
수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목	5	12	19	26	2	9	16	23	2	9	16	23			
금	6	13	20	27	3	10	17	24	3	10	17	24			
토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25			
일	1	8	15	22	29	5	12	19	26	5	12	19	26		
	4월 음력 2(윤)-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화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수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목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금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토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일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화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수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목	6	13	20	27	3	10	17	24	31	7	14	21	28		
금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토	1	8	15	22	29	5	12	19	26	2	9	16	23		
일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화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수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목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금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토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일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6	20	4	19	6	21	5	20	6	21	6	21	7	23	8	23	8	23	8	24	8	22	7	22

2022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 · 행사 · 사건

(2면의 계속)

7월 1일 -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 한인협회 산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조직 그룹(담당 오진하 주 한인협회 고문)의 모임이 있었음. (본지 7월 8일호)

7월 2일 - 한인 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할린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운영된 가운데 이날 35명의 어르신들이 의사의 검진을 받고 치매예방 활동을 함. (본지 7월 8일호)

7월 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3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무술축제 개최.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의 주최로 사할린주협회장(박순옥)과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천영근)의 후원으로 진행. (본지 7월 15일호)

7월 23일 - 아나와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 사회원의 공동주최로 제5회 <한 가정에서>축제를 진행. (본지 7월 29일호)

7월 29일 - 코르사코브시 레닌광장에서 시행정부와 코르사코브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이하 한인회, 회장 이 블라디미르)의 주최로 제1회 <테이스트 코리아 (한국의 맛을 보아라)>축제를 펼침. (본지 8월 5일호)

7월 30일 - 마카로브에서 마카로브 시행정부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협력으로 제7회 <우리는 함께>민족 간 축제가 열림. (본지 8월 5일호)

8월 1일 - 사할린주 청년한인회(회장 이 세르게이)의 주최로 5일간 <나라의 역사 나의 역사>란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가 열림. (본지 8월 5일호)

8월 12일 - 사할린 지방자치체에서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시작됨. 가장 먼저 아나와시 어르신들이 이 기획의 일환으로 고급

전문인들의 상담과 약 처방을 받음.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주한인협회,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할린주 청년한인회가 실시하고 있음.(본지 8월 19일호)

8월 13일 - 광복절을 맞아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거의 10년 만에 시공원에서 크게 명절 행사를 개최. (본지 8월 19일호)

8월 15일 - 광복절 날에 러시아 보안국 측에서 사할린주항토박물관에 남부 사할린에서 일본군에 의한 공포스런 한인 학살과 관련된, 해제된 기밀문서를 전달. (본지 8월 19일호)

8월 2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로 한반도 광복 77주년 기념행사 진행. (본지 8월 26일호)

8월 2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광복절 행사 개최. (본지 9월 2일호)

8월 21일 - 토마리에서 광복절 행사 개최. 1세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본지 9월 2일호)

9월 3일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날에 주한인협회 관계자 등 미주호(포자르스코예, 홈스크구역)마을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와 카미시카(현 레오니도워, 스미르니흐 구역)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를 함.(본지 9월 9일호)

9월 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 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처음으로 '라면' 축제를 펼침. 축제 주최로 나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을 위한 첫 대규모 야외 행사였음. (본지 9월 9일호)

9월 9일부터 11일까지 - 3일간 사할린주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으로 28명이 선출된 가운데 2명(임 유리 의원, 최 유리 의원)은 사할린 한인계 출신이다. (본지 9월 16일호)

9월 1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140주년 기념행사로 김치축제를 진행. 200명이 직접 김치만들기에 참가하고, 시식세트로 700개 배분.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본지 9월 16일호)

9월 17일 - 홈스크시에서 연례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미니축구 시합이 열린 가운데 우승을 돌린스크 한인회 축구팀이 하였음. (본지 9월 23일 호)

9월 19일 - 한국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함. (본지 9월 23일호)

9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장인들의 박람회>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펼쳐짐. 주제는 <한국 전통탈>로 정함. (본지 9월 30일호)

10월 1일 -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콘퍼런스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사할린 한인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 사회 활동가, 동포들이 모임. (본지 10월 7일호)

10월 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의 주최로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본지 10월 7일호)

10월 초 -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명단에는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1세)가 13명이며, 동반가족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명단에는 총 321명이 올라 있음. (본지 10월 14일호)

10월 18일 - 가가린 호텔 대

회의실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 칼리지 부산>설립자이며, 대한고려인협회 이사인 정영순 박사와 만남을 개최. 행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 일환으로 새고려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의 지원 아래 진행. 주제는 '한국: 동포 눈으로 보는 삶'. (본지 10월 21호)

10월 21일 -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에서 사할린주 한국어말하기 대회 진행. (본지 10월 28일호)

10월 22일 - 사할린주 항토박물관에서 '사할린에서 한민족 전통문화' 행사 개최. 행사에서 사할린 한인 관련 주항토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2023 달력도 나눔. 달력 출판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가 후원. (본지 10월 28일호)

10월 24일 -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일제 강점기 사할린 한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KIN은 김홍길 무소속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할린 한인 학살에 대한 정부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서면 질의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10월 28일호)

10월 31일 -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의 회원들이 트로이츠코예 고아원을 찾아 왕만두 빚기 요리 체험교실을 열. (본지 11월 4일호)

11월 초 - 박순옥 주한인협회장은 사할린한인들을 대표해 이태원의 비극적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내용의 서한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에 전달. (본지 11월 4일호)

11월 4일 -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사할린의 등대> 경연 결과를 발표. 주지사가 제정한 사할

린주상의 우승자 중에는 한인동포도 적지 않았음. (본지 11월 11일호)

11월 8일 -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기획의 일환으로 '영화 또는 드라마(시리즈) 관람 후기'란 주제로 원탁 모임을 진행. (본지 11월 11일호)

11월 19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 동양학부가 주최,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의 후원하는 <꿈 같은 떡볶이>요리 체험교실 개최. (본지 11월 25일호)

11월 26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어머니 날 기념행사를 개최.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의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사할린한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의 협력 아래 진행. (본지 12월 2일호)

11월 30일부터 한국에서 고 이희팔 화대귀환 재일한국인 회장의 구술기록 '유언'이 출판되어 판매 시작.

고 이희팔 어르신은 일생을 사할린 동포의 귀환운동에 바쳤으나 정작 사할린 동포사회나 한국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다. (본지 12월 2일호)

12월 10일-11일 - 훗카이도 대학에서 '접경지역에서 위기시대의 지역 정체성과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열림. 사할린 한인 관련 여러 발표도 있었음. (본지 12월 16일호)

12월 1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대표자 회의가 소집. 주한인협회 회장 후보로 3명이 나선 가운데 오진하 사할린주한인협회 고문이 다수가결(40표중 -28 찬표)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됨.

12월 20일경 -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3' 제작과 이희팔 회장의 구술기록 '유언' 한국어 번역 출판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본지 12월 30일호)

(본사 편집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